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6. 5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08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하락, '06. 8 이후 최저 수준
자재비 지수도 여전히 20선에 불과...'04. 3 이후 최저 수준

- 2008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2.1p 하락한 49.3을 기록해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지난 3월 건설 자재비 급등 및 수급 불안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6.8p 급락해 58.2를 기록했던 체감경기 지수는 4월 6.8p 하락에 이어 5월에도 2.1p 하락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이로써 체감경기 지수는 49.3를 기록하여 2006년 8월에 37.8을 기록한 이후 1년 9개월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통상 봄철에는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중견, 중소 업체의 지수는 4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함.
 - 지난 3월 자재비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1.9p 급락해 55.6을 기록한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4월 8.1p 상승한데 이어 5월에도 9.1p 상승하여 70선을 회복함(72.7).
 - 반면, 지난 4월 큰 폭(-28.8p)으로 지수가 하락했던 중견업체는 5월에도 6.9p 하락한 39.3을 기록함. 중견업체 지수가 4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4년 12월(38.2) 이후 3년 5개월만으로 근래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침체가 가장 두드러짐.
 - 4월에 소폭(0.9p) 상승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5월 들어 다시 9.7p 하락한 33.3을 기록함.

- 공사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0.4p 하락한 63.1을 기록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공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침체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주택 공사물량에 대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체감경기 지수와 마찬가지로 공사물량 지수도 지난 3월 전월대비 6.6p 하락해 66.2를 기록한 이후 4월 63.4, 5월 63.1을 기록해 하락 폭은 크지 않지만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공종별 물량지수를 살펴보면, 토목 63.0, 주택 57.7, 비주택 60.8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침체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주택 공사물량에 대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의 침체수준이 여전히 매우 심각함.
-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는 각각 85.9, 80.9을 기록해 자재 및 자금부문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5.2p, 0.4p 하락한 43.3, 24.3을 기록해 침체수준이 더욱 악화됨. 특히 자재비 지수는 2004년 3월 17.5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상황이 매우 심각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도 전월대비 각각 0.8p, 0.6p 하락한 78.7, 74.1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이 좀 더 악화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임 : 2008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자료.

2008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체감경기 지수 3개월 연속 하락, '06. 8 이후 최저 수준 기록

- 2008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2.1p 하락한 49.3을 기록해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 지난 3월 건설 자재비 급등 및 수급 불안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6.8p 급락해 58.2를 기록했던 체감경기 지수는 4월 6.8p 하락에 이어 5월에도 2.1p 하락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 이로써 체감경기 지수는 51.4를 기록하여 2006년 8월에 37.8을 기록한 이후 1년 9개월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 통상 봄철에는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냄.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중견, 중소 업체의 지수는 40선에도 미치지 못

하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함.

- 지난 3월 자재비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1.9p 급락해 55.6을 기록한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4월 8.1p 상승한데 이어 5월에도 9.1p 상승하여 70선을 회복함(72.7).
- 반면, 지난 4월 큰 폭(-28.8p)으로 지수가 하락했던 중견업체는 5월에도 6.9p 하락한 39.3을 기록함. 중견업체 지수가 4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4년 12월(38.2) 이후 3년 5개월만으로 근래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침체가 가장 두드러짐.
- 4월에 소폭(0.9p) 상승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5월 들어 다시 9.7p 하락한 33.3을 기록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0.1	74.0	73.1	67.2	66.4	75.7	67.6	75.0	58.2	51.4	49.3	67.4	50.7
규모 별	대형	100.0	91.7	100.0	77.8	70.0	81.8	72.7	87.5	55.6	63.6	72.7	81.8	72.7
	중견	81.3	76.9	64.0	73.3	73.1	76.9	75.9	79.3	75.0	46.2	39.3	57.7	42.9
	중소	55.4	50.0	52.0	47.9	54.7	67.2	52.1	55.4	42.2	43.1	33.3	61.5	33.9
지역 별	서울	92.9	85.1	88.5	76.6	75.8	82.6	76.3	86.2	63.7	60.0	58.9	76.1	63.6
	지방	60.1	56.3	48.5	50.5	51.9	61.6	53.1	55.6	46.9	36.6	33.3	52.9	29.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58.9, 지방업체가 33.3을 기록 지방업체의 침체가 매우 심각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1.1p 하락 하였으며,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3.3p 하락하여 체감 경기 침체수준이 전월대비 악화됨.
 - 지방업체의 체감 경기 침체수준은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지방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6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50.7을 기록하여 체감경기 침체 수준의 개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이 1.4p 밖에 되지 않아 체감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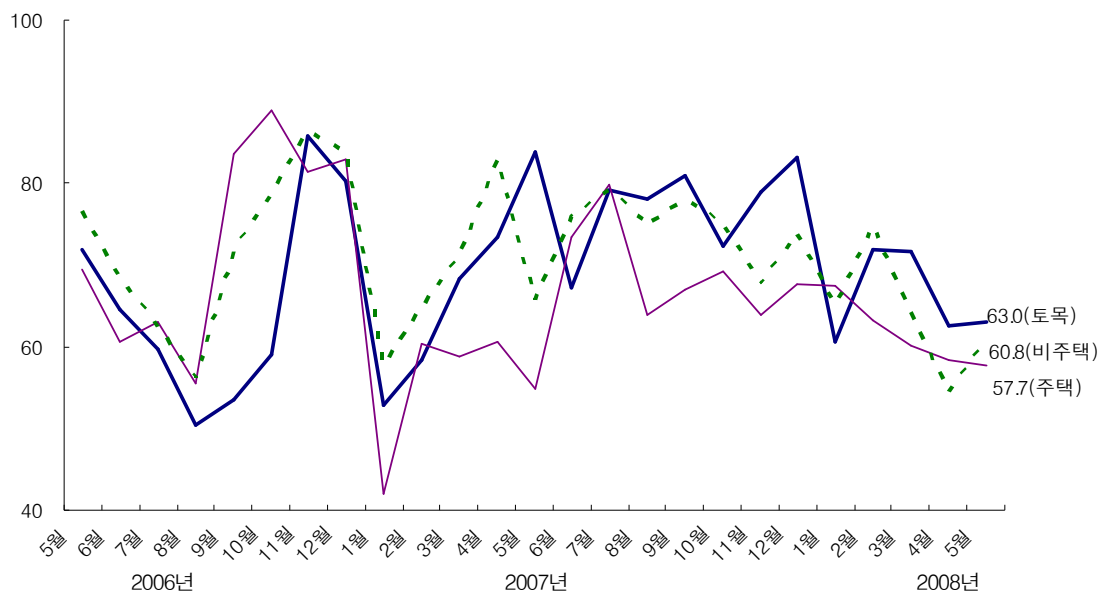
기의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 업체는 72.7, 중견업체는 42.9, 중소기업체는 33.9로 전망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는 63.6, 지방업체는 29.3으로, 특히 지방업체는 경기가 5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
주택 물량지수의 침체 가장 심각

- 2007년 4월 공사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0.4p 하락한 63.1을 기록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공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침체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주택 공사물량에 대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체감경기 지수와 마찬가지로 공사물량 지수도 지난 3월 전월대비 6.6p 하락해 66.2를 기록한 이후 4월 63.4, 5월 63.1을 기록해 하락 폭은 크지 않지만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공종별 물량지수를 살펴보면, 토목 63.0, 주택 57.7, 비주택 60.8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침체된 것으로 느끼는 가운데, 주택 공사물량에 대해 느끼는 침체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토목물량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0.4p 증가) 63.0을 기록.
 - 주택물량지수는 또한 전월 보다 0.6p 감소한 57.7을 기록하여 2007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6.4p 증가한 60.8을 기록, 전월보다 소폭 침체수준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의 지수가 90.9로 다소 양호하지만, 중견, 중소 업체의 지수는 각각 55.6과 39를 기록 낮은 수준이며, 특히 중소 업체의 경우 4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3.1	90.9	55.6	39.0	76.9	39.0
	전망	61.6	90.9	51.9	38.3	76.0	37.0
토목	실적	63.0	90.9	50.0	45.0	77.4	38.1
	전망	67.3	109.1	46.2	42.4	84.1	39.7
주택	실적	57.7	72.7	59.3	38.5	64.5	45.7
	전망	60.9	81.8	55.6	42.3	69.7	45.1
비주택	실적	60.8	100.0	44.4	33.3	77.8	32.6
	전망	59.4	90.9	48.1	35.2	73.2	35.6

주 : 실적은 2008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6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0.5p 상승한 76.9를 기록한 반면, 지방 업체는 전월대비 2.1p 하락한 39.0을 기록, 지방업체의 침체수준이 더욱 악화됨.
- 2008년 6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61.6을 기록하여 공사물량 침체 수준

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자재비 지수 여전히 20선에 불과... '04. 3 이후 최저 수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의 침체수준이 여전히 매우 심각함.
-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수는 각각 85.9, 80.9을 기록해 전월보다 상황이 악화 되었으나, 자재 및 자금부문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수급 지수가 전월대비 14.8p 하락한 85.9를 기록 인력수급 상황이 악화됨.
 - 인건비 지수도 전월대비 2.7p 하락한 80.9를 기록해 침체 수준이 악화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78.7	100.0	75.0	58.1	86.8	64.9
		전망	79.4	100.0	74.1	61.3	86.8	66.6
	자금조달	실적	74.1	90.9	71.4	57.4	81.5	61.2
		전망	73.4	90.9	66.7	60.7	81.5	58.8
인력	수급	실적	85.9	81.8	100.0	74.6	89.3	78.9
		전망	89.1	81.8	107.1	77.0	91.9	83.1
	인건비	실적	80.9	100.0	78.6	61.3	93.5	60.4
		전망	81.9	100.0	78.6	64.5	92.5	64.3
자재	수급	실적	43.0	72.7	25.0	28.6	53.5	26.9
		전망	44.8	72.7	28.6	30.6	55.3	28.6
	비용	실적	24.3	45.5	11.1	14.5	31.1	14.1
		전망	28.7	45.5	17.9	21.3	34.8	19.1

주 : 실적은 2008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8년 6월 예측지수임.

- 자재수급 및 자재비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5.2p, 0.4p 하락한 43.3, 24.3을 기록해 침체수준이 더욱 악화됨. 특히 자재비 지수는 2004년 3월 17.5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상황이 매우 심각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도 전월대비 각각 0.8p, 0.6p 하락한 78.7, 74.1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이 좀 더 악화됨.